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 쇼케이스 첫 선 오월 그날의 현장 생생하게 재현

40여곡의 웅장한 음악과 잘 짜여진 안무 ‘눈길’
스토리·인물 등 수정 보완... 5월부터 본격 공연

5·18 30주년 기념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칭)가 8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열린 쇼케이스를 통해 첫 선을 보았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획창작스튜디오 프로젝트에 선정된 메이 엔터테인먼트가 송원대 엔터테인먼트학과와 산학 협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김정숙(시나리오 각색), 권호성(연출), 미하엘 슈타우다허(음악) 등 경쟁한 공연계 인사들이 합류한 후 4개월간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뮤지컬은 영화 ‘화려한 휴가’의 스토리를 충실히 따라가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신애와 민우의 사랑, 민우와 진우의 형제애, 다양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죽음으로 갈라놓은 5·18 현장의 모습 등을 생생히 표현했다.

홀로 남은 여주인공이 무덤을 찾으며 이야기가 시작될 후 작품은 ‘1980년 5월’의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을 ‘5월 현장’으로 데려간다.

모두 40여곡에 달하는 음악은 웅장함이 돋보였다. 커튼콜 때도 선보이는 ‘광주 내사랑’과 ‘다시 부르는 사랑’ 등은 공연 후에도 컷가에 맴도는 노래들이다. 또 판넬을 활용한 장면 전환과 앙상블이 보여주는 안무 등도 짜임새 있었다.

보완해야 할 점도 눈에 띄었다. 소재를 너무 의식한 듯, 작품이 전반적으로 너무 무거운데다 감정을 고조화시키는 집중 인물이 없어 아쉬웠다. 신애와 민우가 주인공이라는 하지만 관객들이 감정 이입을 하기에는 스토리가 너무 밋밋했다. 또 5·18 시위 현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군중심이 너무 잦아 피날레 부분의 비장함과 웅장함이 반감되고 말았다.

5·18 항쟁이 너무 실명적·직접적으로, 빈번하게 부각되는 점은 ‘노래’나 영상 등으로 표현하는 등 변화를 줘 보편적인 이야기로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그밖에 단선적인 플롯과 너무 정교함에 충실한 예측 가능한 연출은 다소 식상함을 주기도 했다.

이날 무대에 오른 작품은 5개월간 수정·보완 등업 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정식 공연을 갖게되며 창작 뮤지컬의 특성상 무대에 오른 후에도 수시로 수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제작진은 2월까지 공개 오디션을 실시, 출연진을

선정할 예정이며 창작 뮤지컬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스타캐스팅도 염두에 두고 있다. 광주 공연은 5월 7일~16일까지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진행하며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순회 공연을 추진 중이다. 2011년에는 광주 상설 공연과 해외 공연도 추진한다.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관건이다. 2010년에는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로, 제작사는 이를 증자한 삼아 기업체 후원, 펀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호성 연출은 “쇼케이스에서 선보인 작품은 약 50% 정도 만들어진 수준”이라며 “스토리, 음악 등 전반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5월에는 좀 더 완벽한 버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8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에서 열린 쇼케이스를 통해 첫 선을 보인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칭)는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오는 5월 7일 광주에서 정식 초연된다.



김종안 작 ‘삼계탕’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 1년간 창작품 모아 서울서 ‘봄’ 전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13~26일 시립미술관 서울 분관인 인사동 갤러리에서 ‘봄’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일호, 최요안, ‘그림 아이론’ 등 팔각정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강은지, 김민호, 김종환, 서진욱, 안정, 양은철, 오민곤, 정인수, 진스하제 등 양산동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들은 지난 1년여 입주 기간 동안 창작한 회화, 조각, 설치, 사진 등 20여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문의 02-725-004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미협 새 이사장에 차대영씨 당선



한국미술협회를 이끌 새 이사장에 한국화가 차대영(53·동양화·수원대 교수·사진)씨가 당선됐다.

한국미술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올림픽홀과 광주시 민회관 등 권역별 8개 투표소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차씨를 제22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신임 차 이사장은 “미술인 공적조사를 설립하는 등 회원들의 복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익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차 이사장은 서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36회 개인전을 열었고 일본 오사카 아트페어 우수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이번 회장 선거는 순천 출신 서양화가 조강훈(49)씨와 이현국(59·공예·경희대 교수)씨 등 3명이 출마해 2만7천여 회원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치러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올해는 ‘수잔 보일’을 꿈꾸자

지난해 4월 영국의 한 신인발굴 TV프로그램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 출연자 대기실. 젊은 출연자들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중년 여성이 있었다. 다른 출연자들이 TV에 좀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 분장을 하는 것과 달리 그녀는 다소곳하게 앉아 있었다.

프로그램 리포터가 ‘뫼는 이 여성에게 다가가 이름을 묻자 “올해 47살인 수잔 보일”이라고 씩씩하게 답했다. 이어 그녀는 “지금껏 남자친구와 데이트는 물론 키스조차 한 적도 없다. 직업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무대를 위해) 얼마 동안 연습했느냐는 질문에 “12살 때부터”라고 대답했다.

이윽고 그녀가 무대에 등장했다.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방청객과 3명의 심사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퍼짐한 몸매는 그렇다치고 부스스한 머리는 TV출연자로서 성의가 없어보였기 때문이다. 까칠하기로 소문난 심사위원 사이먼이 거만한 표정으로 나이를 물었다. 재차 나이를 물어본 것은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잔 보일은 “47살”이라고 발랄하게 대답했다. 방청객들이 비웃는 듯 술렁거리자 “나이는 단지 나의 일부뿐”이라며 풍성한 영감을 흔들었다. 보통 출연자들 같으면 주눅이 들지만 그녀는 질문이 이어질수록 더 당당해졌다. “꿈이 뭘냐”는 질문에 “일레인 페이지(영국의 전설적인 오페라가수)처럼 되는 것”이라고 답해 방청석의 아유를 받았다.

더 이상 수잔 보일을 ‘뫼는 게’ 몇 쪽이자 사이먼은 큐사인을 던졌다. 두 손을 모은 채 그녀가 청아한 목소리로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의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성 심사위원 아만다의 눈가는 촉촉해졌다. 1절이 끝나기 전에 방청객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공연을 끝내고 무대를 떠나는 수잔 보일을 심사위원 피어스가 불러 세웠다. “3년간 심사를 했지만 오늘 같은 감동은 처음이었다”며 “우리의 질문에 마음을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방송이 나간 후 그녀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의 오디션 동영상은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소개되면서 최근까지 약 1억2천만 명이 조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 발매된 그녀의 데뷔앨범 ‘아이 드림드 어 드림(I dreamed a dream)’은 영국과 미국의 팝시장을 석권하며 300만 장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렸다.

전 세계가 수잔 보일에 열광한 것은 단지 그녀의 빼어난 가창력 때문만은 아니다. 외모로만 평가한 심사위원들의 편견에 맞서 주눅들지 않고 노래실력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린 그녀의 당당함은 수많은 ‘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무엇보다 언젠가 무대에 설 순간을 꿈꾸며 12살 때부터 ‘연습’해 온 그녀의 집념은 희망을 잃고 사는 보통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결연한 해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되살려 소중하게 간직해나가자. 오늘 저녁엔 수잔 보일의 앨범을 사 가지고 퇴근해야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광주 사람들 위로하는 음악 만들어 행복”



작곡가 미하엘 슈타우다허
“독일서 광주 알리기 운동도”

1980년, 독일 마인거튼에 살고 있던 15살 소년 미하엘 슈타우다허(45·경희대 교수)는 누나와 함께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소년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5월 광주’에 대해 알게 됐다. 소년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가두 선전과 함께 주민 서명을 받고,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도 썼다. 사형선고를 받은 DJ의 구명활동에도 나섰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2010년, 소년은 5·18 관련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칭)의 음악을 맡았다.

“광주를 다룬 작품의 음악을 맡게 된 걸 보면 인생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당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며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음악 작업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8일 ‘화려한 휴가’ 쇼케이스에 참석한 슈타우다허는 광주와 인연을 말하며 감회를 전했다. 지난해 9월 작품을 의뢰받은 미하엘은 40여곡을 만들었다. 창작곡이 대부분이지만 군가와 애국가 등을 변주하기도 했고, 쇼케이스 전날까지 광주 호텔에서 음악 편곡 작업을 진행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16년간 한국에 와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는 슈타우다허는 ‘스파이더맨 3’의 음악을 맡은 크리스토퍼 영 등을 사한 작곡가로 영화 ‘천년’ ‘인디언 뽀빠’로 대중성 음악상을 수상했다.

“처음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라 걱정도 많았죠. 음악은 너무 무겁거나 선동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죠. 역사적인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는 동시에 휴먼드라마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쇼케이스를 보면서 수정 부분들을 세심히 체크한 슈타우다허는 “이번 무대에는 빠졌지만 연출과 상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삽입하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 / 화 / 안 / 내

메 가 박 스	콜롬버스시네마	하미시네마	씨너스전대	제일시네마
<p>1관 용서는없다(184)</p> <p>2관 전우치(124)</p> <p>3관 설복용즈(124)</p> <p>4관 아바타(124)</p> <p>5관 용서는없다(184)</p> <p>6관 엘빈과슈퍼밴드2(124)</p> <p>8관 나인(154)</p> <p>7관 전우치(124)</p> <p>8관 더로드(154)</p> <p>9관 아바타(124)</p> <p>• 예매유 주저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영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노가 아니다!</p>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극장사거리 ☎1544-0600</p>	<p>1관 전우치(124) / 나인(154)</p> <p>2관 설복용즈(124)</p> <p>3관 전우치(124)</p> <p>4관 전우치(124)</p> <p>5관 엘빈과슈퍼밴드2(124)</p> <p>6관 아바타(124)</p> <p>7관 아바타(124) / 용서는없다(184)</p> <p>8관 더로드(154)</p> <p>9관 용서는없다(184)</p> <p>10관 아바타(124)</p> <p>힐튼사람영화사망 • 문의: www.joycbs.com / 1588-7941 상류권 (상류권과 이마트 사이) 매남점 (무역화관빌딩)</p> <p>전 세계를 놀라게 한 아이는 이 아이였어!</p> <p>12월 30일 10주년 기념</p> <p>1588-7941 상류권연계 발행 - (1번 or 2번) -> 0번</p>	<p>1관 나인(154) / 아홉의귀환(124)</p> <p>2관 용서는없다(184)</p> <p>3관 전우치(124)</p> <p>4관 더로드(154)</p> <p>5관 용서는없다(184)</p> <p>6관 2012(124)</p> <p>7관 아바타(124)</p> <p>8관 아바타(124)</p> <p>9관 전우치(124)</p> <p>10관 설복용즈(124)</p> <p>• 500여대 넘는 주차장(3시간 무료) • 365 매일 심야</p> <p>• 아동 동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p> <p>• 하이 수영장 289-5757 • 하이 볼링장 262-0925</p> <p>• 하이 골프장 251-5060 • 하이 당구장</p> <p>고려사람 고객상담 • www.hamichema.co.kr / 1588-9120</p> <p>전미무선 하미스포텍 ☎ 267-7777</p>	<p>1관 나인(154)</p> <p>2관 아바타(124)</p> <p>3관 전우치(124)</p> <p>4관 파르나세스 박사의 상상극장(124)</p> <p>5관 설복용즈(124)</p> <p>6관 전우치(124)</p> <p>7관 아바타(124)</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 무료주차 3시간 • 아동동선사 할인혜택</p> <p>• 세너스놀차 사우스(오전5시-오후11시)</p> <p>색깔있는 영화산업 • www.cinuso.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아바타(124)</p> <p>2관 아바타(124)</p> <p>3관 용서는없다(184)</p> <p>4관 용서는없다(184)</p> <p>5관 설복용즈(124)</p> <p>6관 엘빈과슈퍼밴드2(124) / 나인(154)</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우시열요원역사극장) -구.김정관 극장, 고려에 한함</p> <p>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p> <p>12월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다</p> <p>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 / www.jellicinema.co.kr •</p> <p>총장점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p>